

포항시 “ICLEI 세계총회 유치로 지속가능 미래 설계할 것”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참석
2027년 세계총회 유치 의지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

포항시가 ‘2027 ICLEI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에 본격 나섰다.

포항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2027년 세계총회 유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이번 총회는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관하며, ‘모두를 위한 과학 기반의 녹색 전환’을 주제로 전 세계 지방정부 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 세계 50여 개 지방정부에서 80명이 넘는 시장 및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시는 총회에 참여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심



15일 이클레이 한국총회에서 포항시가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지방정부 대표와의 교류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5일 개회식과 이클레이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공식 일정 등에 참석했다.

특히 15일 이클레이 한국총회에서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방 정부 네트워크’에 포항시가 가입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을 국제 사회와 공유할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속 가능

한 녹색성장 도시 포항’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며, 철강 도시에서 친환경 산업 도시로 전환과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의 기후 행동’을 주제로 열린 ‘자연과 조화’ 세션 의장으로 나서 포항시의 사례와 세션 주제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총회 기간 포항시는 고위급 면담으로 2027년 ICLEI 세계총회 유

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 시장은 이클레이 회장인 카트린 뢰펠트 아메(스웨덴 말뚝시장), 이클레이 사무총장인 지노 반 베긴, 캐나다 퀘벡주 수석대표 다미앙 페레이라와 연이어 면담을 갖고, 2027년 세계총회의 포항시 유치 당위성과 국제적 역량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철강 산업의 중심에서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 온 도시”라며 “2027년 ICLEI 세계총회를 포항에 유치해 전 세계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환경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오는 30일에는 이클레이 세계본부(독일 본부)에 2027년 세계총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상

광주시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24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광주시는 공공도서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도서관구입비 등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창원시

‘한글 경조사 봉투’ 제작·배포

창원시는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에 자주 쓰이는 봉투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바꾼 ‘한글 경조사 봉투’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사업은 ‘2025 창원시 국어진흥 지역 어보전 계획’의 하나로, 경조사 용어부터 한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했다.

대부분의 경조사 봉투는 ‘祝 結婚’이나 ‘謹弔’처럼 어려운 한자로 쓰여, 일반 시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

이에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결혼’, ‘애도’, ‘첫돌’, ‘갑사’, ‘발전’ 등 5가지 문구를 담은 한글 봉투를 제작해서 5개 구청과 본청 민원실에 비치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밀양시

삼랑진·하남 파크골프장 개장

밀양시는 삼랑진·하남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지역 구도·시의원, 흥두북 파크골프장 협회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 시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장식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삼랑진·하남 파크골프장 확충 공사 완공을 기념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내일부터 ‘부산국제보트쇼’ 열린다

해수부·부산시, 20일까지 개최
육상·해상 전시장서 동시에 열려
12개국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회’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이번 주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8~20일 사흘간 부산 벡스코 및 수영강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 전시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부산 벡스코 제1 전시장에 준비된 육상 전시장은 약 130개사가 참가하는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된다.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수부·부산시는 설명했다.

행사장 내에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의 12개국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체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을 제공한다. 또 구명조끼 착용, 응급처치 등 해양 안전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별도 부스도 운영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 1월 28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물김 가격 안정화 대책 간담회.

/해남군

해남군, 물김 위판액 2년연속 1000억 달성

올해 생산량, 7.8만톤 기록

해남군 2025년산 물김이 4월 9일자 기준 1153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년도 전체 위판고인 1138억원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년 연속 위판고 100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판고 증가는 물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가량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2025년 해남산 물김 생산량은 현재까지 총 7만 8159톤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안정적인 해황과 초기 채묘

시기에 갯병 발생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이 고품질 김 생산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수출이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하고 수출국 또한 2010년 66개국에서 2023년 122개로 확대되는 등 해외의 한국 김(K-Gim)의 큰 인기가 바탕이 되어 물김 수요가 증가한 것도 큰 요인이 되었다.

올해 물김 위판은 4월 23일 전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량과 위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울산시, 하도급 보증수수료 지원 ‘첫 결실’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은 사업 현장은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엔콘스가 발주한 100억원 규모의 토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정은 ‘토공’ 분야로, 그간 외지 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아 지역 업체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울산시는 토공을 비롯한 주요 공정에 지역 우수 업체를 연계하기 위해

다방면의 영업활동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 결과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에이치디씨아이엔콘스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수수료 약 110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현재 2025년 상반기 지역 건설업체 대상 영업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올해에는 22개 지역 업체를 선정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업신용도, 현금흐름 등급 등의 상담을 포함한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실질적 조건 충족을 돕고 있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선정

영주, 청도, 구미 일원 선정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전국 최다로 선정됐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경북에서는 영주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 청도 풍각장 일원, 구미 금리단길 일원 등 3곳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사업은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구성원이 현안 해결과 상권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네 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상권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수립형’에 선정된 영주시는 국비 6500만원을 포함한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상권기획자인 헤인협동조합과 함께 영주로 자율상권 구역을 근대 역사와 미식을 결합한 관광형 상권으로 조성한다.

청도군은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주관기관인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와 함께 풍각장을 복고 감성과 청년창업을 결합한 감성적인 상권으로 바꾼다는 전략이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부산시-부산시설공

장애인의 날 ‘두리발’ 무료운행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222대의 두리발을 운영 중이다.

이날 무료 운행은 탑승 시간 기준으로 당일 오전 0시부터 자정까지며 두리발 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시외 광역운행과 장애인마우처 콜택시는 무료에서 제외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